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3/25(주일) 설교 내용

마태복음 21:1-9

1. 내가 만약 나귀 주인의 입장이라면, 낯선 사람들의 나귀를 달라는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 그 낯선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나귀’ 라고 말한다면 나의 반응은 달라졌을까요?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만약 나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면,
어느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내 소유인 나귀를 달라고 요청한다면,
또 그 이유를 “주가 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가지로 나뉘어 대답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내 나귀를 달라고 하며 끌고 가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
2. 나귀를 끌고 가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했을 경우
에는 나의 반응이 달라질 것인지

1번과 2번의 반응이 달라지겠다고 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나누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 나귀는 바로 ‘오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며,
‘오늘’ 해야 하는 헌신을 ‘내일’로 미루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봉사나 섬김, 물질이나 시간의 헌신..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나누어 봅시다.

설교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오늘 본문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된 누가복음 19:20에 보면,
이 나귀가 ‘사람이 한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라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이 나귀는 저도 한번 못타보았습니다.
오늘만이라도 제가 사용하고, 내일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이 나귀 주인은 그저 한 나귀의 주인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헌신을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그 헌신을 감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리는
귀한 헌신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해야 할 헌신을 ‘내일’로 미루었던 적은 없었는지,
혹은 ‘오늘’ 기꺼이 그 헌신을 감당함으로
더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경험은 없었는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